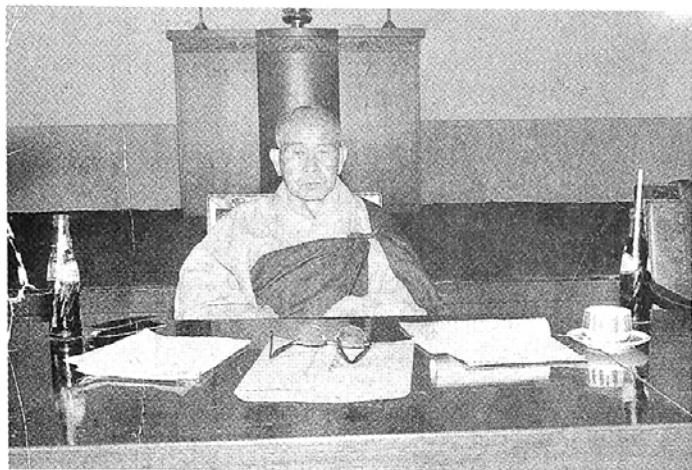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연등공양 이쥬”



정화불사이후 조계종 감찰원장을 맡아 총무원에서 일하던 문성스님. 스님은 이후 30여년을 일체의 공직에 오르지 않았다.

나 우리네 산다는 것은 눈뜨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고(苦)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억에 회미하지만 6·25 한국전쟁때 내가 빨갱이들을 쫓아 봤는데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들도 고통받기를 싫어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넉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공부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시절'이란 것이 무엇인지 되물게 됩니다. 마음이 성해야 물질이 성해 서는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정신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한때 청담스님과 인연이 맞아 불교정

‘부처 이루겠다’ 願 놓지마세요 ‘중생과 부처는 평등하다’ 는 가르침 텅빈 마음으로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이끌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입산했다면 은산철벽도 부수고 말겠다는 발심으로 수도일념에 빠져도 사실상 성불에 이르기에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0살이지만 빠짐없이 예불에 참석하고 주력하는 것은 바로 수행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성심으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식 예불도 거르면서 무슨 큰 것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요, 일상의 작은 것을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어디 고상한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일념으로 간직해야 할 것은

세속에서 살고 있는 재가 불자들은 생활환경이 같지 않음 뿐만 아니라 심리작용도 다른 까닭에 중생과 부처가 다 평등하다는 말이 얼른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 닿지 않으니 듣기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생제불 일리제평'이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 생을 걸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요즘 생각을 텅 비우는 것을 하 두 삼아 하고 있습니다. 잘 생활하는대로만 따라서 밥먹고 예불도 드리고 경전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가 종교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 내 마음을 닦는 방법과 마음 닦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영불도 해야하고 참선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말이 쉬워 영불이고 참선이지 자신을 몰입하는 정진이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세속을 떠나서 그런 공부를 하려면 힘이 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흥내를 낸다고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텅 비워 버리고 좋다 나쁘다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게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으면 좋대로 하찮으면 하찮대로 먹으면 그만이지 좋다 나쁘다 생각을 내면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을 내봤자 누가 내 생각에 딱 맞춰 주지도 못하고 그 생각에 나만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말지요. 그렇게 생각을 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사는 우리 불자들이라면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항상 분별을 내지 않고 생활하십시오. 텅 비워낸 마음으로 각자가 일상에서 진심을 다해 '중생제불, 일리제평'이라는 진리를 항상 참구하면서 생활해나가기 바랍니다.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생제불 일리제평' '중생제불 일리제평'

정리=천미희 기자

“마음보다 물질 성하면 좋은 시절아냐” 성불의 길 부처님 제시...실천이 중요

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냥 단순히 고통이라고만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들은 마음을 밝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경험에 비추어 바른 마음을 내며 고통이 단지 고통만은 아님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면 결국 고(苦)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누워 지내지만 한 때는 육천사에 선방을 열어 성철스님 서옹스님 청담스님 등과 6년간 지극하게 공부했습니다. 주지를 하다가 소임을 내 놓고 산내 잡안인 백련암에 선방을 치렀는데 당시 진정한 수좌는 60명 정도라고 했으니 선방개설이 쉬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먹고살기는 어려워도 공부하겠다는 마음 하나는 패기에

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주자들이 친일파와 대척승들이 많아 왜색불교를 척결해보자고 나섰던 것이지요. 정화불사가 정부의 도움도 받고 해서 잘돼가자 나중에는 정화에 참여했던 집달리스님들이 또 설쳐대더군요. 그러니 다같은 부처님밥 얻어먹으면서 스님들끼리 싸움하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잘못지내고 문중짜지고 질짜지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먹는 음식, 지내는 거처는 신도들한테 모두 의지하니 잘못 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출가자들이나 재가자들 모두 부처님의 한 제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정화불사이후 나는 말았던 감찰원장 직을 내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 관음정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지닌 분이 오셔서 종단을

태아에 불법을 전하고 싶는데

문 현재 임신 중인 주부입니다. 두 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태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도 불법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요. 저 자신은 불법이 좋아서 평소에 관법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를 점검하기에 아직은 깊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차리리 기독교 식의 기도나 아니면 염불·주문을 외우게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남편이 회사 업무 상 가끔 술을 마시는데 알고보니 여자들이 시종드는 술집을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부터는 지꾸 나쁜 상상을 하게되고 남편의 과소비나 계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숙경·전주시 완주군>

것도 주인공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굳게 믿고 놓아야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면 망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르게 됩니다. 남편의 일도 그렇습니다. 나부터 자꾸만 안좋은 상상을 한다면 안좋은대로 통산이 될 것이고 한쌍개 쫓겨 돌리 놓는다면 좋은 쪽으로 통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상을 하고 있다가 남편을 대하게 되면 그게 금방 전과되어서 남편의 태도나 표정부터 달라질 것이고 마음자리도 자꾸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과가 교란을 일으키듯 부부 사이가 점점 꼬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부끄럽고 인내롭게 마음을 돌려야 상대도 좋게 호응을 해 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의 먼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만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선·익업 태 마음에서 비롯되나 문 불성은 공이요 선도 악도 없다는데 선업 악업이 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지요? <강명숙·포항시 대신동>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게. 독자의 마음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세요. 필수적인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천하유신선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속의 아이야 무말할 것도 없고 두 살 배기 아이도 한통속이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주인공 내 주인공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다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자기발전소에 너 나 없이 가설이 되어 자동적으로 힘을 주고 받는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한 생각 지극한 마음으로 냈다고 하면 빛보다 빠르게 잘나가는 자식들에게도 힘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태교에 따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상대를 보고 무엇을 어찌했다고 하면 그건 돌로 보는 게 되어서 잘 통하지도 않고 부딪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지극하게 둘이 아닌 주인공을 믿고 관하면 잘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선하게, 아름답게, 자비롭게 쓰면 풍심은데 콩나고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모이게 됩니다. 또 관법수행에 가끔 회의를 들고 그래서 기도나 염불·주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신다는데 그런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회의를 드는 것도 다 제 속에서 나온 것이니 그 또한 주인공의 몫으로 돌려 놓아야 하겠지만 믿음이 약하면 지꾸 사람이 생기고 분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때 망념이 이는 것도 주인공의 일이지요 안 듣게 하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려면 영원한 생명의 불과 업식과 부모의 정열이 한데 합쳐져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불이란 바로 불성, 우주의 근본을 말하고 업식이란 신·구·의로 짓는 업의 덩어리 즉 중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불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서 힘만 배울해주는 자라고 업식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데 따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니 마치 설계도가 있어서 그에 따라 건물을 짓듯이 인연따라 나투게 되어 있지요. 저 소달구지에 비유한다면 소는 불성이고 달구지는 육신이고 목동은 업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이끄는대로 소는 '그냥' 움직여 줄 뿐이고 달구지는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동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달구지는 오른쪽으로 구를 것이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있지요. 또 짐을 잔뜩 싣고 가겠다고 하면 소는 그렇게 끌고 갈 것이고 빈 소로는 가겠다고 하면 빈 소레인 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목적은 첫째로 마음을 바르게 써서 악업을 멀리하고 이왕이면 선업을 쌓자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 길에 들어섰으면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대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마침내 대자유인의 구경지에 들자는 것입니다.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용주사, 신흥사, 직지사, 팔공산 동화사, 은해사. (List of branch temples and their staff members)